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 답변: 성장, 인플레이, 금리
- WSJ: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이유'
- Bloomberg: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월초 이래 가장 크게 증가
- CNN Business: 트럼프, "당선되면 파월 의장 해고하지 않겠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분석가, "AI 버블 발생하게 된다" 경고

[미 대선]

- Bloomberg: 돌아온 '트럼프 트레이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Bloomberg: 공화당 전당 대회 5가지 주요 사항

[원유]

- Bloomberg: OPEC+ 대표단, 4분기 공급 증가 계획 유지 예상
- WSJ: 미 원유 재고 3주 연속 감소

[물류]

- Bloomberg: 글로벌 해운 압박에 인플레이션 압력 커져

[글로벌 경제]

- Bloomberg: ECB, 이번 달 금리 동결... 다음 인하 결정 위해 데이터 더 필요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미국 기업들, 추가 관세 피하기 위해 수입 확대
- CNBC: 미국 아울렛 물이 부진한 이유
- WSJ: 매장 내 마스크 착용 관련 논쟁 재점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Where Do Economists Think We're Headed? These Are Their Predictions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 답변: 성장, 인플레이, 금리

- 미 경제 성장: 여전히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빠른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가 지나면서 경제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악화되기 보다는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실업률:** 실업률은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 실업률도 최근 들어 전문가들의 예상치 보다 약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즉, 6월에는 4.1%로 2023년 초에는 3.4%였다. 구인 수요가 둔화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보다 안정된 일자리 환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인플레 움직임:** 인플레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WSJ 전문가들은 설문 답변에서 인플레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준이 인플레를 목표치인 2%고 끌어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WSJ 기사

WSJ: Why the Fed Should Cut Rates Now—Not Wait Until September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이유'

- **요지:** 노동 시장이 약화되는 것이 가속화되는 인플레보다 더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는 4.3%에서 2.6%로, 지난 1984년 이래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 연준 목표치 2% 선상의 가시권에 있다.
- 실업률도 3.6%에서 4.1%로 상승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기 외에는 거의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연준은 향후 2주 뒤에 있을 회의에서 금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당장의 금리 인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연기 시키는 것 또한 리스크가 있다. WSJ의 이코노미스트 설문 조사 결과에서 다가오는 해에 침체 가능성을 28%로 보고 있다. 높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경기 상황 때보다 높다.

WSJ 기사

Bloomberg: Initial Jobless Claims in US Increase by Most Since Early May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5월초 이래 가장 크게 증가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월 초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받는 청구 건수도 꺾충 뛰었다. 노동 시장의 둔화를 보여주는 증거다.
- 7월 13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건 줄어든 24만3천건을 기록해 지난 2023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연방 노

동부는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 이같은 증가 폭은 같은 주에 텍사스에서 11만5천건 이상 늘어났는데, 허리케인 Beryl여파도 있었다.

- 전체 실업수당 건수도 2만건 늘어난 1백 87만건으로 기록되어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높았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Trump says he wouldn't fire Fed Chair Jerome Powell. Don't hold your breath 트럼프, “당선되면 파월 의장 해고하지 않겠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 하지 않겠다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혔다.
- 그러나 그는 “파월 의장이 바르게 일을 처리한다면 파월 의장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 그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이 연준 관리를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한 것이다.
- 관련 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연준 관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정책적인 차이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man's Top Stock Analyst Is Waiting for AI Bubble to Burst 골드만삭스 분석가, “AI 버블 발생하게 된다” 경고

- 골드만삭스 분석가인 Jim Covello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닷컴 버블 등이 발생하기 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에 그는 인공지능 붐에 대한 위험성에 베팅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위험성이 올해나 내년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천억달러 규모가 AI에 투자되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 혁명을 가져다주거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혜택에 필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분명해지면 여기에 투자한 주식들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Bloomberg: The 'Trump Trade' Is Back: What It Means for Investors

돌아온 '트럼프 트레이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출마와 관련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부진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인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재임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투자 또는 매각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그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공약이 미국 주식, 국채 수익률, 달러를 급등시킨 바 있다.
- 통화: 대선 토론 이후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토론 수시간 만에 토론 수시간 만에 '달러 가치 상승'으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중국 및 다른 국가로부터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얀 해치우스는 이러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연준이 금리를 5번 더 인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 국채: 27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의 자금 관리자들은 대선 토론 이후, 단기 만기 채권을 사고 장기 채권을 파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헤지 전략으로 '스티프너 거래'라고 불린다. 월스트리트의 여러 전략가들은 이 전략을 추천하며 고객들에게 트럼프의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 주식: 트럼프의 정책은 은행, 의료 회사, 교도소 운영 업체, 에너지 기업 등의 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자동차 제조업체와 석유 회사에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민간 교도소 운영 회사 주식이 상승했고, 총기 관련 주식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반독점 규제가 풀릴 경우, 공화당 정부 하에서는 M&A에 대한 규제 승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정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암호화폐: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규제 당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대선 토론과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플랫폼, 클린스파크, 마이크로전략 등이 가상화폐 관련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하지만 멕시코 폐소화와 중국 위안화는 달러 강세와 트럼프의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기업은 트럼프의 친환경 보조금 철회 약속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무역 긴장 고조로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거대 기술 기업들은 트럼프의 온라인 발언 규제 노력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ive Key Takeaways From Republican Convention as Vance Steps Up

공화당 전당 대회의 5가지 주요 사항

- 오하이오 상원 JD 밴스는 부통령 지명을 수락하면서 트럼프의 입장을 변호하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블루칼라와 경합주 노동자들을 주목하는 발언을 통해 주택 구매 여력의 위기를 강조했다.
- 오하이오 시장을 비롯해 텍사스 주지사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외교정책, 에너지, 국경 이슈, 환경 이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다.
- 연설자에는 의회 모독 혐의로 바로 몇 시간 전에 출소한 피터 나바로 트럼프 무역 고문도 포함되어 트럼프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상기시켰다.
- 이번 트럼프의 활기찬 전당대회는 바이든 캠페인 관련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 취소, 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확대와 바이든의 캠페인 행사를 취소하게 만든 코비드 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열렸다.

Bloomberg 기사

[원유]

Bloomberg: OPEC+ Delegates Don't See Oil-Hike Plan Changes at Meeting

OPEC+ 대표단, 4분기 공급 증가 계획 유지 예상

- OPEC+ 대표단은 다음 달에 열리는 그룹 모니터링 세션에서 4분기부터 시작되는 공급 증가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그룹은 10월부터 하루 약 220만 배럴의 중단되었던 원유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자, 관계자들은 8월 1일에 소집될 예정인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공급 증가를 연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후 시장은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85달러 근처에서 거래되는 등 반등하고 있어, OPEC+의 긴박감이 완화된 상황이다. 대표단은 합동 장관급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생산량 정책에 대한 어떠한 권고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OPEC+가 9월 초 원유 수송량을 할당하기 전까지 몇 주 더 공급 증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WSJ: U.S. Crude Oil Inventories Fall for Third Straight Week

미 원유 재고 3주 연속 감소

-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이 수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원유 재고는 3주 연속으로 감소한 반면,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증가했다.
- 상업용 원유 재고(전략 석유 비축유 제외)는 7월 12일로 끝난 주에 490만 배럴 감소하여 4억4020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5년 평균보다 약 5% 낮은 수준이다.
- 전략비축유(SPR)는 65만 배럴 증가한 3억 7,370만 배럴을 기록했다. 오클라호마 Cushing에서 NYMEX 배송 허브 원유 재고는 87만5천 배럴 감소하여 3,270만 배럴을 기록했다.

WSJ 기사

[물류]

Bloomberg: Global Shipping Strains Spark Fears of an Inflation Comeback

글로벌 해운 압박에 인플레이션 압력 커져

-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일렉트릭의 운영 담당 부사장은 18개월 만에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화물선 예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컨테이너 현물 운임은 몇 주 만에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객들은 4분기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제품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다.
-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은 수요일 연구 노트를 통해 해운 가격 상승의 위험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모델은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만한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ECB Holds Rates Steady With More Data Needed for Next Cut

ECB, 이번 달 금리 동결... 다음 인하 결정 위해 데이터 더 필요해

-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금리를 인하한 이후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투자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ECB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블룸버그가 조사한 55명의 이코노미스트 모두가 예상한 대로, 예금 금리는 3.75%로 유지되었다. ECB는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될 수 있도록 대출 비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CB는 성명에서 최근의 지표가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를 광범위하게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어 내년까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 ECB는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확정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를 지켜보며 회의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S Companies Boost Imports in Rush to Avoid Tariffs 미국 기업들, 추가 관세 피하기 위해 수입 확대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상품을 들여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부 해안 항구에서는 예년보다 이른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 이러한 수입 열풍은 해운사들이 홍해의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태평양 무역 항로를 우회하면서 발생한 물류 대란과 맞물려, 화물 운임료 인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 미국 신발 유통 및 소매 협회(Footwear Distributors & Retailers of America)의 매트 프리스트(Matt Priest) 회장은 화물 운임료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가 신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CNBC: Why outlets are lagging behind other mall categories in the U.S. 미국 아울렛 몰이 부진한 이유

- 과거 미국의 아울렛 몰은 의류 제조 공장에 부속되어 계절이 지난 제품, 과잉 생산된 제품, 결함이 있는 제품을 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었다. 이후 대중에게 개방되면서 인기 브랜드의 할인 상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고, 2023년에는 63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팬데믹 동안 아마존, Shein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상으로 아울렛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쇼핑객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 반면 전체 방문자 수를 추정하는 분석 회사인 Placer.ai의 데이터에 따르면, 실내 쇼핑몰과 야외 쇼핑센터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울렛 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CNBC 기사

WSJ: The Fight Over Masks in Stores Is Back—This Time With a Twist 매장 내 마스크 착용 관련 논쟁 재점화

- 팬데믹 초기에 소매업체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과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확립된 마스크 착용 문화를 악용해 얼굴을 가리고 절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주 및 지방 정부가 마스크 착용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달 시위 중 얼굴을 가린 시위대에 대응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독립 보석상인 Diamond Collect는 지난해 두 명의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침입해 강도를 당한 후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강도 사건 당시 어머니가 공격당했던 에바 첸 사장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매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미 기술주 급락·달러 약세...트럼프, 이미 시장 움직임이다

재정적자 확대·장기 인플레이 상승 전망엔 큰 합의
금융·정유 트럼프 수혜 전망...채권시장, 연준 메시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시장을 움직이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기술주 급락과 달러화 약세 등의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 반도체 등 기술주 급락·달러화 하락에 트럼프 발언 영향

24. 7. 18. 오후 1:08

Constant Contact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2.42포인트(2.77%) 급락한 17,996.92에 장을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